산사태 위험에 공사중지 요청했는데…무시했다 또 '참변'

집중호우에 광양 진상면 주택 매몰 80대 노인 사망

단독주택 공사현장 경사로 흙더미 덮쳐 아래 주택 2채·창고 1동 매몰 지난 5월에도 타이어 만한 돌 굴러 떨어져…주민들 올 3차례 시에 진정 광양시 "배수로 등 대책 요구, 업체가 수용 안해"…안일한 행정 지적

집중호우로 공사현장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 주택을 덮쳐 80대 노인이 숨졌다. 마을 주민 들이 여러 차례 공사 현장의 토사가 쓸려오는 위험 성을 경고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 았다는 점에서 안일함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 졌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광 양시 진상면 탄치마을 인근 단독주택 공사현장 경 사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공사장 아래 주택 2채와 창고 1동이 매몰되고, 창고 2동이 파손됐다.

토사가 무너진 소리에 주택에서 나왔던 A(여· 82)씨가 매몰됐다가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9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주택 1 채에 사는 주민은 외출한 상태였다.

일대 주민들은 마을 위에서 진행중이던 주택공사 현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문제로 꼽고 있다. 광양 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공사현장에서 쓸려내 려온 흙더미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만큼 집중호 우가 예보된 뒤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 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게 주민들 얘기 다. 문제의 현장에서는 단독주택 3채를 짓는 공사 가 이뤄지고 있었다.

주민 B씨는 "올해 2월까지 3차례 걸쳐 광양시에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공사장 돌이 굴러 떨어지는 등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진정을 넣고 공사중지를 요청했었다"면서 "광양시는 산사태 위험 징후는 발 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지난 5월에도 타이어 크기 만한 돌이 굴러 떨어져 경운기로 겨우 치웠다"고 말

광양시는 민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억울하 다는 입장이다.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현장 담 당 업체쪽에 배수로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경사 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업체측은 추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받아들이 지 않았다고 광양시는 답변했다. 광양시는 또 "주민 민원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쳐 당시 에는 산사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

일각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는 게 아닌, 민원 처리에만 급급한 행정 처리 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 당 업체측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니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행정 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다.

마을 주민 D씨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업체 측에 주민 민원을 전달하고 안정성 검토 등을 요구 했지만 거부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면 광양 시는 할 일은 다한 거냐"고 반문했다. 일부 주민들 은 광양과 달리, 함평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사 허가 과정에서 미리 경사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제 출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 공사현장 과정에서 의 적법한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양=정병호·김대수 기자 jusbh@



6일 오전 광양시 진상면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날 사고로 80대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물난리 복구도 다 못했는데…가슴 졸인 구례

주민들 지난해 악몽에 뜬눈 밤 새고 새벽부터 가축 돌보는 등 노심초사

"복구도 다 못했는데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밤 새 잠을 못 잤어요."

지난해 8월 사상 초유의 '섬진강 물난리'로 삶 의 터전을 잃었던 구례주민들은 이번 집중호우 에도 노심초사하며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지난 해 피해 입은 집・일터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구레의 경우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197mm의 비가 내렸다.

지난해 수해로 애지중지 키우던 소들을 잃은 구 레군 양정마을 봉성농장 백남례(여·61)씨는 이른 새벽부터 축사를 찾아 가축들을 돌봤다. 백씨 축사 는 지난해 수해 이후 무너진 천장 복귀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비가 뚝뚝 떨어졌다.

백씨는 "수해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아직 축사 를 모두 손보지 못했다"면서 "아직은 괜찮은데 언제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물이 불어날지 몰 라 시도때도 없이 뉴스를 확인하고 임신한 소들 먼저 살핀다"고 말했다.

수해로 집을 잃고 구례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주거지에서 지내는 주민들도 비슷했다. 공 설운동장에 배수로가 없다보니 이날 주거지 주 변은 온통 빗물로 가득찼다. 최영례 할머니는 "지난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눈을 붙일 수 없었 다"면서 "밤새 창문을 수십번 열며 비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구례군도 실시간으로 강수량과 섬진강댐 수

위를 확인하고 있다. 기상청이 이번 집중호우 때 도 300mm이상 온다고 예보했었지만 지역별로 400mm를 넘긴 곳도 있는 탓에 예보 내용 외에도 현장 기상 여건을 주시하면서 긴급 상황을 대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됐지만 민간 피해복구는 시작조차 못 한 곳이 많다"면서 "섬진강 상·중류 쪽에는 집중 호우 영향이 덜해 오늘 오전 섬진강 댐 수위는 179.2m(지난해 수해시 섬진강 댐 수위는 193.5m)로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례=정병호·이진택 기자 jusbh@

장흥댐·주암댐 수문 방류 고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7일 오후 장흥 댐과 주암댐 수문 방류를 고려중이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는 댐 하류 주민들이 방류 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3시간 전 통보하던 방침 을 '24시간 전 예고·3시간 전 통보'로 제도를 강화

사, 전남서남권지사는 '수문방류 예고제'를 첫 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3일부터 6일 정오까

지 누적 강우량은 주암댐 유역은 255㎜, 장흥댐은 355mm를 기록했다.

6일 오후 기준 저수율은 주암댐 52.3%, 장흥댐 68.8%로 나타났다. 영·섬본부는 7일 오후에는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방류 승인을 신청했다.

수문방류 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 문자(CBS) 시스템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방류사 실을 알릴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건번호 물건

'노조 활동 방해' 임직원 6명 6~10개월 구형

비고

등으로원상복구시

정명령중.기간도

래후이행강제금0 부과될예정이고누

과금액금7,070,00 0원이라고함

최저매각가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제지회 사〈광주일보 2월23일 6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이 구형됐다. 광주노동청이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 입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사례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양판지 임

매 각 물 건

붕단층4.2㎡및2-3 사무실및창고등경량철골 조판넬지붕단층102.0㎡매각제외.다른제시

외건물매각포함 지상위소재하고있는철골구

조물.컨테이너형냉동창고및컨테이너박스마

직원 6명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징 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업본부장 A(62)씨에게는 징역 10개 월, 직원 1명에게 징역 8개월, 직원 4명에게는 징 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협조적 노조를 결성 키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방노동청은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 입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적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 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대양판지지 회)의 영향력을 감소,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측 주 도로 노조(대양판지노조)를 설립하고 대표 노조로 삼아 교섭권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 사를 방해했다는 게 노동청 판단이었다.

대양판지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 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호우에 대한통운택배 주차공간 지반 무너져

여수서…인명 피해는 없어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여수 CJ대한통운택배 여 수터미널 내 택배차량 주차공간 지반이 무너져 내 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6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택배차량 주차장 일부 토사가 유실됐다. 다 행히 노동자들이 택배를 싣고 나간 이후 발생,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여수지회측은 "무너 진 구간은 회사측이 택배차량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해 확장한 구간"이라며 "사측의 부실한 불법 확장 공사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뻔 했다"고 말했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매 각 물 건		배정보 웹으로 접 감정평가액	
사건번호	물건 번호		용도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77337	1	동구 운림길23, 103동 4층 507호 84.92㎡	아파트	197,000,000 197,000,000	
2021타경 61025	1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153, 102동 10층 100 6호 [남평강변도시유성그린파크] 59.724㎡	아파트		현황조사시점관리 비약50만원이미닡 된상태라고함
2021타경 61520	1	남구 서문대로556번길6, 103동 16층 1601 호 [송하동,삼익아파트] 113.27㎡	아파트	210,000,000 210,000,000	
2021타경 61926	1	동구 남문로693번길11, 205동 8층 804호 [학동,학2마을아파트] 84.96㎡	아파트	379,000,000 379,000,000	2021타경62271[중 복]
2021타경 63144	1	북구 대자실로23, 101동 18층 1810호 84.3 ㎡	아파트	194,000,000 194,000,000	
2021타경 63564	1	나주시 대호길45-17, 102동 17층 1703호 [대호동,호반리젠시빌] 84.883㎡	아파트	165,000,000 165,000,000	
[대지/임	J 0 F	/전답]			
2021타경 662	1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552-28 351㎡[현황 전원형단독주택부지로이용중에있는대지임. 2021.5.13자서삼면장사실조회서상공부상지 목농지일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요하다는회 신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요]	ប់រា		토지만매각,매각 제외제시외건물있음.토지상석축[깐 돌쌓기]부분,관정 ,정화조매각포함
2021타경 60923	1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산57 33521㎡ 동소 산8 14579㎡ 동소 산9 21818㎡	임야 임야 임야		일괄매각.맹지.20 21타경2989[중복]
2021타경 61193	1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산66-2 9128㎡[공유 자김경환지분1/5전부.연고미상분묘소재.현	임야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 회로제한

		번호	소새시 및 면적 [m] 	용 노	[단위:원]	·
	2021타경 60794 2021타경 2279 [중복]	1	남구 효천2로가길7, 5층 502호 128.82㎡[현황조사일시기준관리비약260만원미납된상 태로일부옆호실과칸막이안되어있음.이와관 련경계벽철거는영업편의등을위한사회통념 상일시적인것으로보임건축물대장및건축물 현황도등에의해각구분건물의위치와면적이 특정되고경계벽의설치로구분건물의복원이 어렵지않을것으로보인다는2021.5.24자감정 인의사실조회회신있음]	근린시설	400,000,000 400,000,000	
,	[자동차	, 중	[וכ			
-	2021타경 61612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경열로234번길 26[중흥동] 등록번호:55우7393 차명:제네시스 연식:2012	자동차		보관장소:광주광 산구산정동156,현 대주차장
	2021타경 66792	1	사용본거지:전남 양시 중마중앙로 137, 2 총 [중동] 등록번호:전남02라2937 기종:굴 착기 연식:2014[조사시점가동시간은계기판 상9,372.2시간.건설기계등록원부상유효검 사기간은2017.06.16.~2020.06.15.일.차량 번호판은한개만있음]	건설기계		보관장소:남구송 암로124-3[송하동 ,송원주차장]
	[기타]					
	2020타경 75355	1	나주시 동수동 319-1 2287㎡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142 가,다동호 공장 ,냉동공장,작업장,창고 518.38㎡[내력:공 장184.32㎡,냉동공장154.0㎡,작업장127.50 ㎡,창고52.56㎡] 다동 냉동창고,작업장,기 계실,구내식당 관리인실 1층405.06㎡[내력:냉동창고285.12㎡,작업장86.40㎡,기계실3 3.54㎡] 구내식당및관리인실 2층87.13㎡ 제시외 통로 등 4.5㎡,급냉설비 3식[물건 번호1: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봌뛹지 와 같음.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 구포함.제시외건불중2~2참고판별조판별지	공장,작업 장,창고		일괄매각.가동건 물중약56.0㎡,96. 0㎡,중축된부분있 으며매각포함.다 동건물중1층기계 실33.54㎡열실.건 축물대장상위반건 축물이며나주시사 실조회상아직이행 강제금이부과된사 실없으나건축하자아 또는신고득하지아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극을 내 국소간 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랑으로써 매각이 불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

으에 이들 구려될구 있음.)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남으로 실효되 들 경우 그 교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핵사한 수 없다. 때라고 다해 가이에 다른 예산 나고 있다.

5. 매각방법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 메'ㅋ 이기 옷 내급占 납 무 기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하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하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하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대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2.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나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의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언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노 ① 매각대급을 남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열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남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급을 남부하였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구시시 6 이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등록신청을 마친 일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충금을 배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일반인들의 영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영세서, 연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파네 마시아어 올답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디 발표한 정보를 얻으면 우 집을에구를 본단어지기 마입니다.
③ 릭발매국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일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리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 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

니다.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할에서 제외됩니다.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

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판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러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역신청이나 손때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 기를 받는데 백기의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